교육
부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진전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이행(2012-2016년)에 관한 제6차 설문조사 결과

교육 2030

유네스코 교육 부문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기반이기에 유네스코가 최우선시 하는 분야다.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교육 분야 유엔(UN, United Nations) 전문기구로, 유네스코 교육 부문에서는 전지구적·지역적 교육 리더십을 제공하고, 국가 교육제도를 강화하며, 특히 양성평등 및 아프리카에 초점을 둔 교육을 통해 범세계적 당면 과제들에 대응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2030 의제

교육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빈곤 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를 주도하고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다.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 2030 실행계획은 이 야심찬 목표와 책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교육
부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진전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이행(2012-2016년)에 관한
제6차 설문조사 결과

교육 2030

이 책은 2019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간했습니다.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유네스코한국위원회(KNCU,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유네스코길) (우: 04536)

© UNESCO 2019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ISBN: 978-89-94307-90-9

이 책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CC-BY-SA 3.0 IGO)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시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기록관(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원제: Progress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2014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초판 발행
7, place de Fontenoy, 75352 Paris 07 SP, France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나 지역의 법적 지위, 각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국경, 경계 구획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 책에 표현된 필자의 생각과 의견이 유네스코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표지 사진: Rawpixel/Shutterstock.com
그래픽 디자인: 안나 모르트뢰(Anna Mortreux)

발 간 일 | 2019년 5월 31일
펴 낸 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　　역 | 김용범(번역원 알바트로스)
교　　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조판편집 | 정명진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이 메 일 | ed.team@unesco.or.kr
한위간행물등록번호 | ED/2019/BK/2

이 책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개요

1. 1974년 권고안의 지침(guiding principles) 이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2.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은 대다수 국가의 헌법, 국내법 또는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3. 거의 모든 국가의 교과 과정이 1974년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 및 관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4. 대부분의 국가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공민학/시민성, 사회과학, 역사에 초점을 두고 범교과적(cross-curriculum)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5. 대부분의 국가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할당된 수업 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습 자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6.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적 접근 방식이 가장 인기가 있다.

7. 불충분한 교사 연수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8. 더 많은 국가가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학생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의 평가에 대한 관심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9.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은 공교육 밖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

10. 새로운 계획 및 정치적 우선 순위는 가장 흔한 촉진 요소이며, 자원의 부족은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목차

Ⅰ. 서문 2

Ⅱ. 배경 2

Ⅲ. 조사 결과 4

Ⅳ. 결론 12

감사의 말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회원국과 각국 교육부의 값진 기여가 없었다면 완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네스코는 이들 국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각 국가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에 감사한다.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이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 그 분석 결과를 그래프로 만들어 낸 영국 로햄튼 대학의 브라이오니 호스킨스(Bryony Hoskins)와 라노라 다이아나 캘러한(Lanora Diana Callahan)의 귀중한 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유네스코 교육 부분 평화·지속가능발전국은 상기 분석 결과를 검토해 현재의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최수향 지속가능발전국장과 해당 부서 직원들, 특히 알렉산더 라이트(Alexander Leicht), 도브 린치(Dov Lynch), 크리스토퍼 캐슬(Christopher Castle), 리디아 루프레트(Lydia Ruprecht), 호다 자베리안(Hoda Jaberian)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또한 이들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준 『유네스코 세계교육현황 보고서』(UNESCO Global Education Monitoring Report)의 책임자인 마노스 안토니니스(Manos Antoninis)는 이 보고서의 출간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I. 서 문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1974년 권고안)는 1974년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매 4년마다 유아, 초등, 중등, 중등 이후/고등 분야 교육 내 1974년 권고안 이행 조치에 대해 유네스코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974년 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한 제6차 설문조사[1] (이하 제6차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분석하고 있다.

제 6차 설문조사 결과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 내 교육 관련 목표(SDG 4) 중 세부목표 4.7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1974년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4.7은 1974년 권고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및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과 관련이 있다(참고 1). 세부목표 4.7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은 유네스코의 우선 순위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의제 전반에 걸쳐 진척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참고 1. SDG 세부목표 4.7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

II. 배 경

수정 설문지

회원국들은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보낸 설문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설문지는 1974년 권고안의 내용을 4개의 지침과 이에 관련된 주제들로 개념화했다(표 1).[2]

표 1.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및 관련 주제들

지침	주제
문화다양성 및 관용	국제 이해, 연대 및 협력
	문화간/종교간 대화
	세계시민의식
평화 및 비폭력	국가 간 우호적 관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
	괴롭힘과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포함하는, 다른 형태의 폭력 예방
인권 및 기본적 자유	평등, 포용, 차별 금지
	정의 및 공정성
	윤리, 도덕, 가치
인간의 생존 및 복지	기후 변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지구 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소비 및 생활

1) 제6차 설문조사 이전에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 1차 설문조사(1989년): 1983-1987년 이행 현황 대상 / 57개국 응답
- 2차 설문조사(1992-1993년): 1988-1993년 이행 현황 대상 / 40개국 응답
- 3차 설문조사(2000년): 1995-2000년 이행 현황 대상 / 32개국 응답
- 4차 설문조사(2008년): 2005-2008년 이행 현황 대상 / 37개국 응답
- 5차 설문조사(2012년): 2009-2012년 이행 현황 대상 / 57개국 응답

2)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38/243899e.pdf

참고 2. 세부목표 4.7의 글로벌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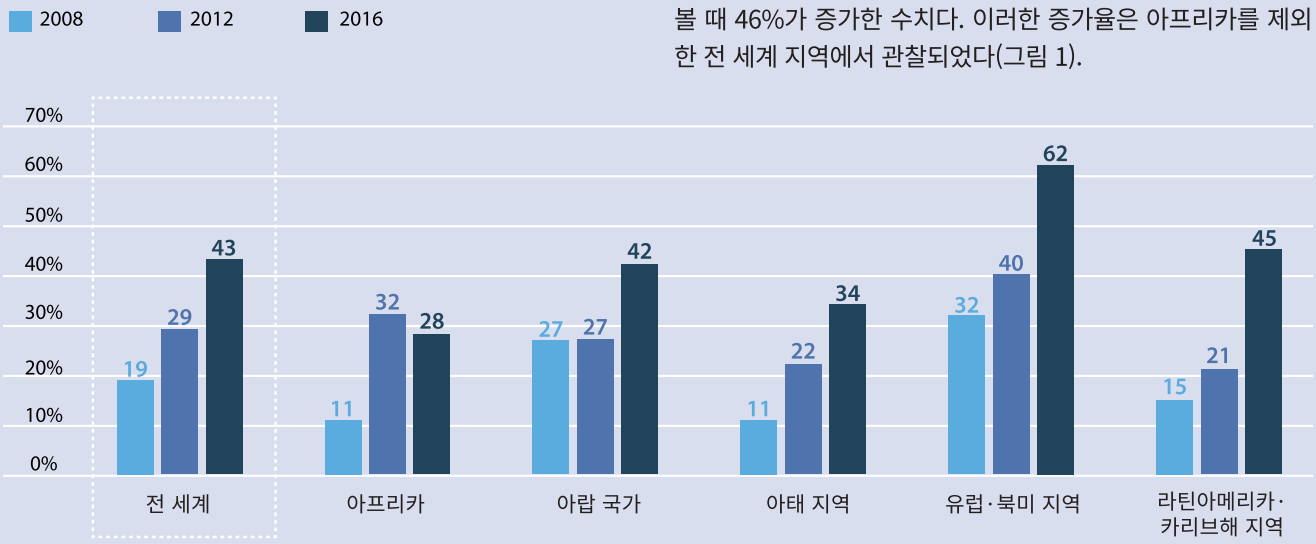
성평등과 인권 등 (i) 세계시민교육과 (ii) 지속가능발전교육의 (a) 국가 교육 정책 (b) 교육 과정 (c) 교사 교육 (d) 학생 평가에서의 주류화 정도

(유엔 총회 결의안 A/RES/71/313을 통해 승인)

제6차 설문조사에서 세부목표 4.7 관련 사항을 다루기 위해 기존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문항들이 개정되었고, 세부목표 4.7의 글로벌 지표(참고 2)가 공식 설문조사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개정된 설문지 문항들은 1974년 권고안이 이 글로벌 지표와 관련해 각 국의 교육 정책, 교과 과정, 교사 교육 및 학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더불어 회원국들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선다형(multiple-choice) 문항이 도입되었고, 보고된 자료를 수량화하고 국가간/지역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ended) 문항은 줄였다.

그림 1
제4차(2008년)/제5차(2012년)/제6차(2016년) 설문조사 참여 국가(단위: %)



높아진 응답률

제6차 설문조사에서는 195개 회원국 중 83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해 43%의 응답률을 보였다.[3] 이는 2012년 5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해 29%의 응답률을 기록했던 제5차 설문조사와 비교해 볼 때 46%가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율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 지역에서 관찰되었다(그림 1).

자료 분석 및 한계점

이 보고서에서는 자료의 연속성이 있어 장기간에 걸친 비교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이전 설문조사 결과들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전 결과 자료는 대부분 정성적인 것이어서, 2017년에 실시된 특별 연구(ad-hoc study)에서 부호화·계량화된 자료들을 통해서만 비교가 가능했다.[4]

이 보고서가 분석한 자료는 각 국이 **자체 보고한(self-reported) 정보이기에**, 자료의 성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자료의 비교 해석에 있어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3) 대부분의 보고는 90%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져 완결 상태였다.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률이 10% 미만일 경우 분석 대상 자료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4) UNESCO, 2017, Historical efforts to implement the UNESCO 1974 recommendation on Education in light of 3 SDGs Targets, Paris, France.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4/002472/247275E.pdf

III. 조사 결과

결과 1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은 개선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

그림 2
5년 전과 비교해 제6차 설문조사에서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에 진전이 있다고 보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 (단위: %)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과 관련해, 조사에 참여한 모든 회원국 중 92%(70개국)에서 5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적절한 또는 전면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그림 2). 이러한 진전은 아태 지역, 유럽·북미 지역,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 이들 지역에서 "충분한 향상"이 이루어진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을 상회한다. 아프리카와 아랍 국가에서 "충분한 향상"을 보고한 국가는 각각 8%와 14%로, 전 세계 평균에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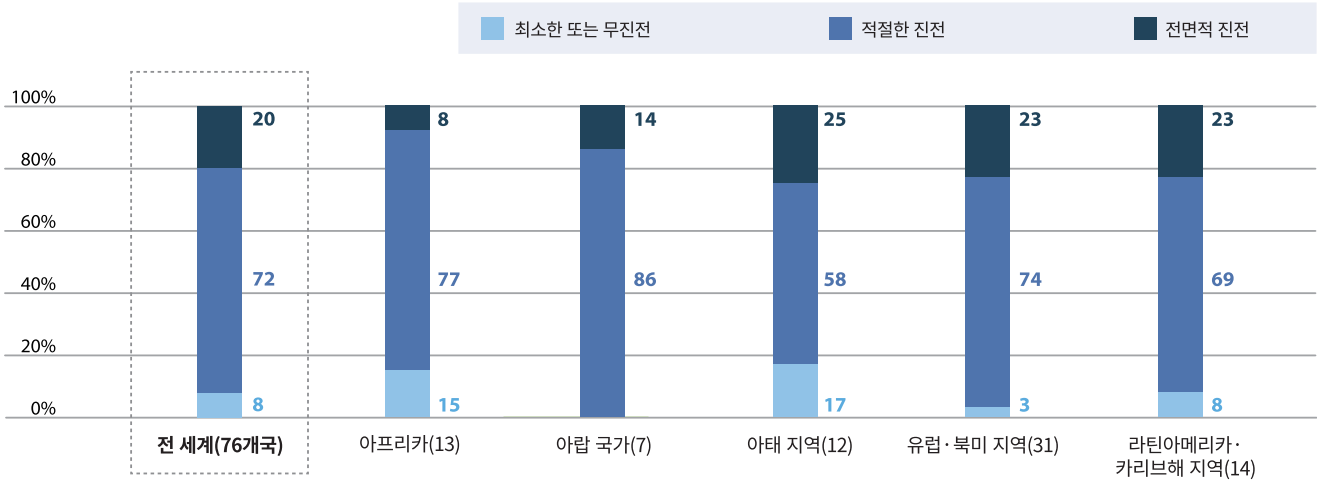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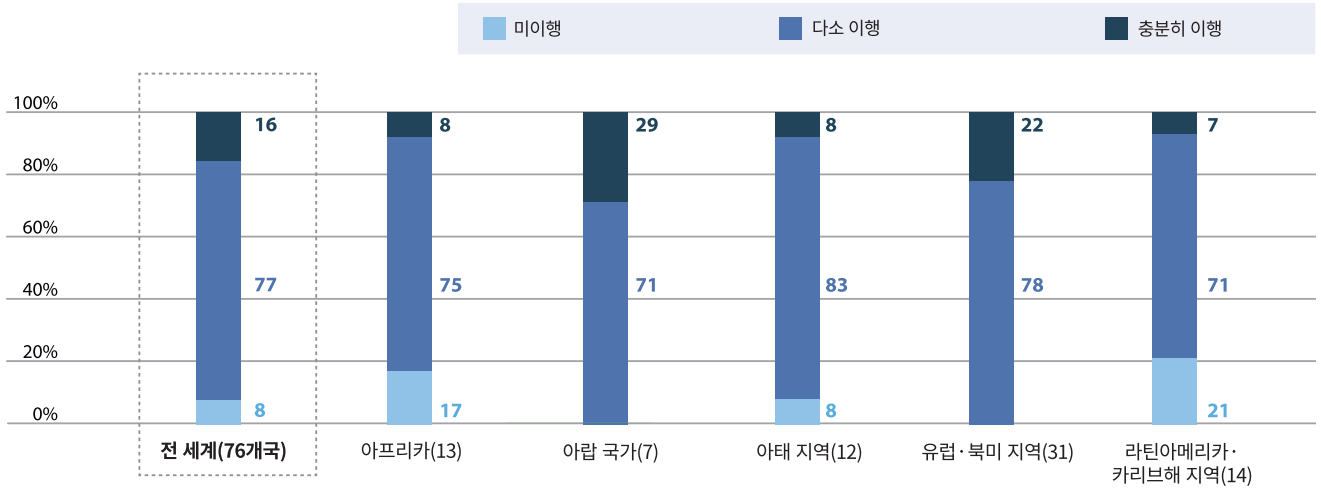


그림 3
제6차 설문조사에서 현재 이행중인 1974년 권고안의 지침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국가의 지역적 비율(단위: %)

이와 더불어 현재 이행 현황을 보면 지역적 편차가 두드러진다. 아랍 국가들뿐만 아니라 유럽·북미 지역 내 모든 응답 국가들은 1974년 권고안의 부분적 혹은 충분한 이행이 있었다고 보고했다(그림 3).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은 각각 17%와 21%의 높은 미이행률을 보였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8%를 훨씬 상회한다.



결과 2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은 대다수 국가의 헌법, 국내법 또는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4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헌법이나 국내법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단위: %)

조사 참여국 중 98%(80개국)에서 각 국의 헌법이나 국내법(예: 폭력, 추행, 괴롭힘을 줄이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입법)에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4). 유럽·북미 지역 국가들의 74%는 이 지침이 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미이행률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이 가장 높았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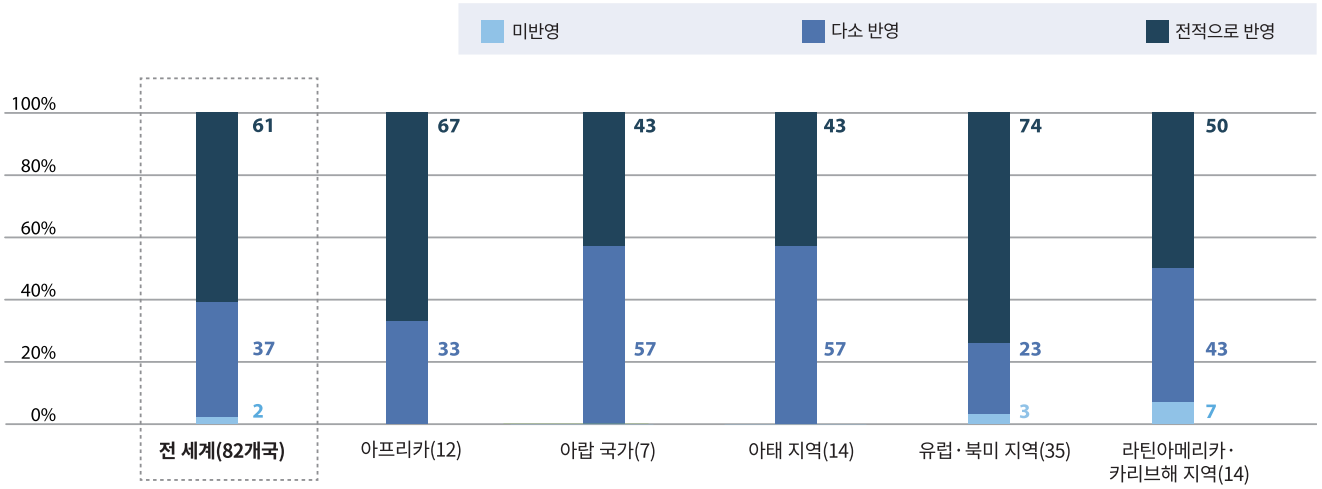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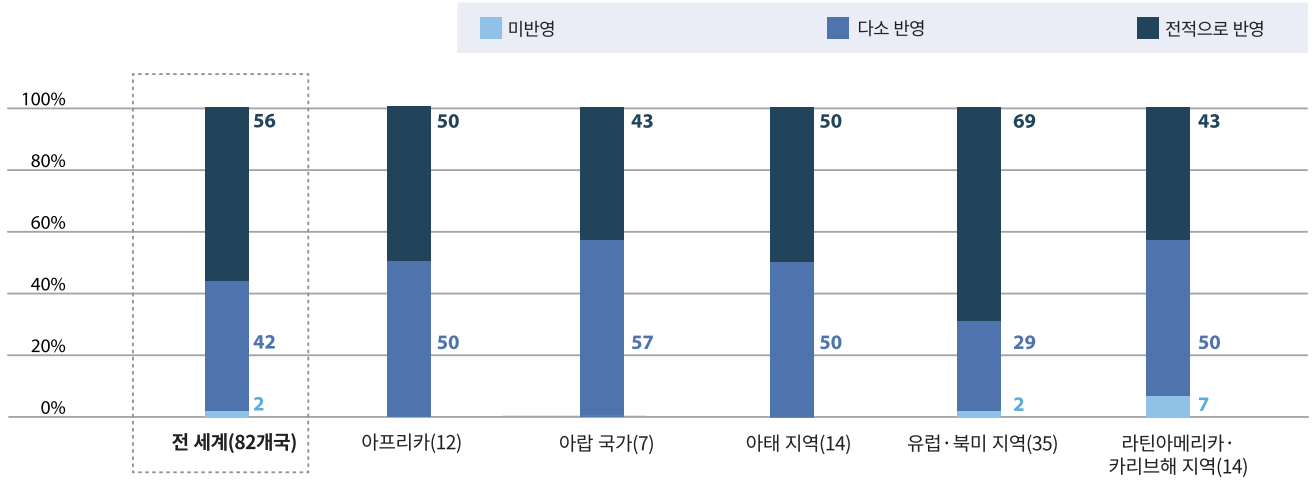


그림 5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교육 정책 및 체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단위: %)

각 국의 교육 정책 및 체계 내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충분한, 그리고 부분적인 이행 모두 포함) 정도 또한 98%로 높았는데(그림 5), 이는 각 국 정부가 이에 대해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제5차 설문조사에서 보고된 수치인 89%보다 증가한 것이다. 유럽·북미 지역은 가장 높은 완전한 이행률(69%)를 보인 반면, 미이행률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이 가장 높다.



결과 3

거의 모든 국가의 교과 과정이 1974년 권고안을 포함하고 있으나, 문화다양성 및 관용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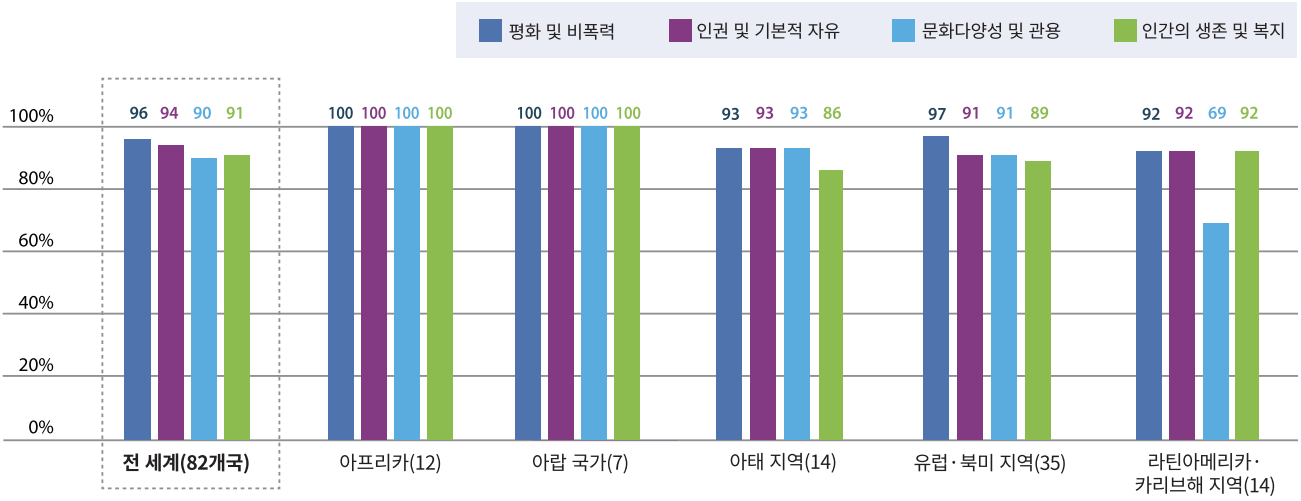
그림 6
공교육 교과 과정 내에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고한 국가의 지침 주제별 비율(단위: %)

거의 모든 국가들(99%, 81개국)이 자국의 교과 과정에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및 관련 주제들을 포함시켰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지침에서 문화다양성 및 관용에 관한 주제가 교과 과정에 포함된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그림 6). 지침의 주제들[5]을 분석해보면, 주로 아랍 국가, 아태 지역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이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랍 국가들은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성적 측면을 포함한 폭력 및 괴롭힘 관련 주제들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7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주제별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국가의 지역별 비율(단위: %)

교육/교과 과정 개혁 또는 정책 개발에 있어 국가가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점점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을 분석해보면, 문화다양성 및 관용에 대한 상대적 비중 축소가 확인된다. 응답한 국가들 중 96%에서 평화 및 비폭력 관련 지침에 보다 더 많은 중요성을 부여한 반면, 90%의 국가들은 문화다양성 및 관용 관련 지침을 더 중시했다(그림 7).

지역적으로는 아프리카 및 아랍 국가들에서 모든 지침 내용들에 부여하는 중요성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아태 지역에서는 인간의 생존 및 복지 관련 지침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쏠렸다. 반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문화다양성 및 관용 관련 지침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는데(69%), 이는 또한 세계시민성 관련 주제에 대한 이 지역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기도 하다.



5) 이 보고서의 분석에는 사용되었지만 표에 나타나지 않은 자료는 다음의 주소를 통해 찾을 수 있다.
https://en.unesco.org/themes/gced/sdg47progress

결과 4

대부분의 국가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데 있어 공민학/시민성, 사회과학, 역사에 초점을 두고 범교과적(cross-curriculum)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림 8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위한 여러 교수법을 활용하는 국가의 지역별 비율(단위: %)

88%의 국가들(72개국)이 한 개 이상의 교과 과목이나 주제 영역을 넘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범교과적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는 반면, 57%의 국가들은 개별 과목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8).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개별 과목 접근 방식보다 범교과적 접근 방식을 강하게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의 경우 아랍 지역에서 인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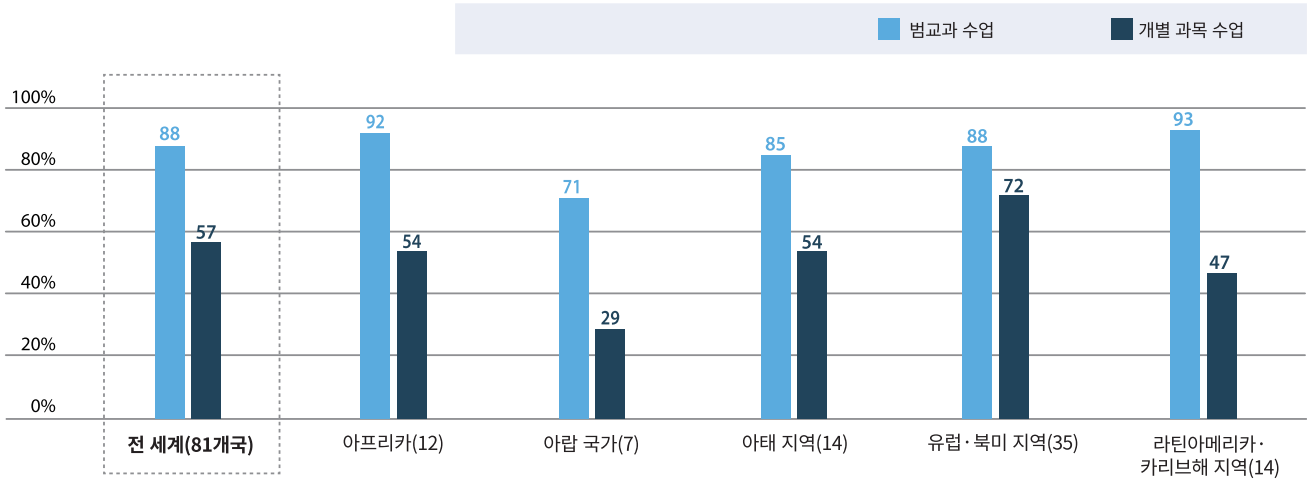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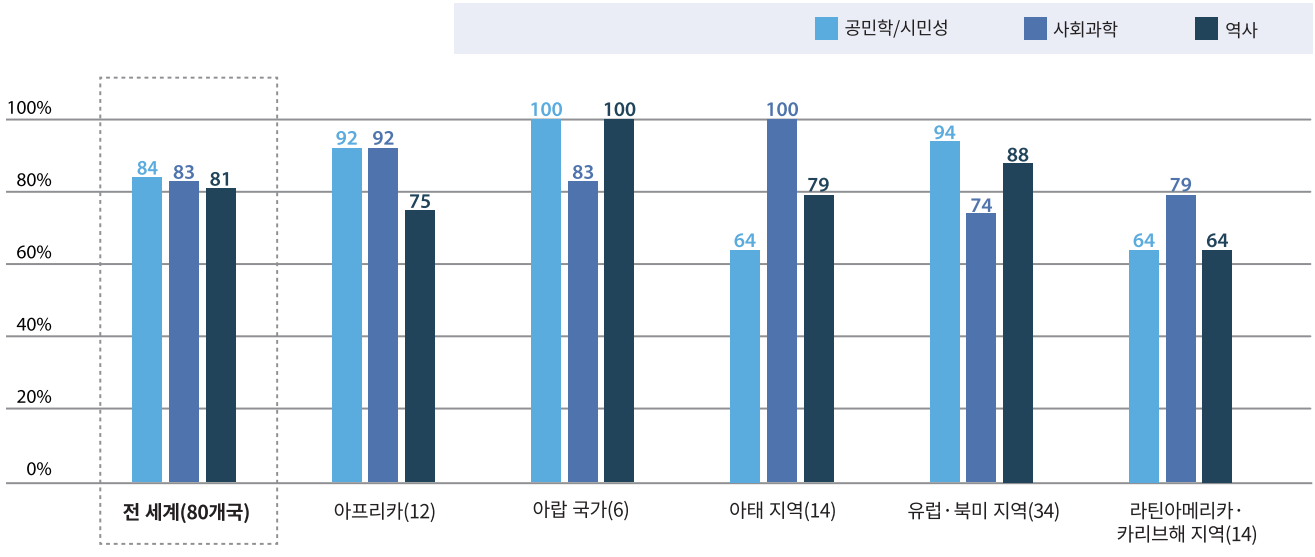


그림 9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3대 학교 과목을 보고한 국가의 지역적 비율(단위: %)

전 세계적으로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수업이 가장 흔히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공민학/시민성, 사회과학, 역사다(그림 9). 아랍 국가에서는 공민학과 역사 과목에서 일관되게 관련 지침을 다루고 있고, 아태 지역에서는 사회 과목에서 이를 가르친다. 전 세계적으로 윤리학/도덕 과목, 예술, 종교 교육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수업으로서 가장 덜 선호되는 과목들이다.



결과 5

대부분의 국가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할당된 수업 시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학습 자료에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0
1974년 권고안의 지침 관련 수업 시간의 적정성을 보고한 국가의 지역적 비율(단위: %)

75%의 국가들(60개국)은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할당된 수업 시간이 적당하다고 보고했으며, 20%의 국가들은 충분하다고 보고(그림 10)한 반면, 5%의 국가들은 수업 시간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아랍 국가, 아태 지역 및 유럽·북미 지역 국가들은 해당 수업 시간이 충분하다고 보고한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다. 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낮은 반면(8%), 수업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답한 비율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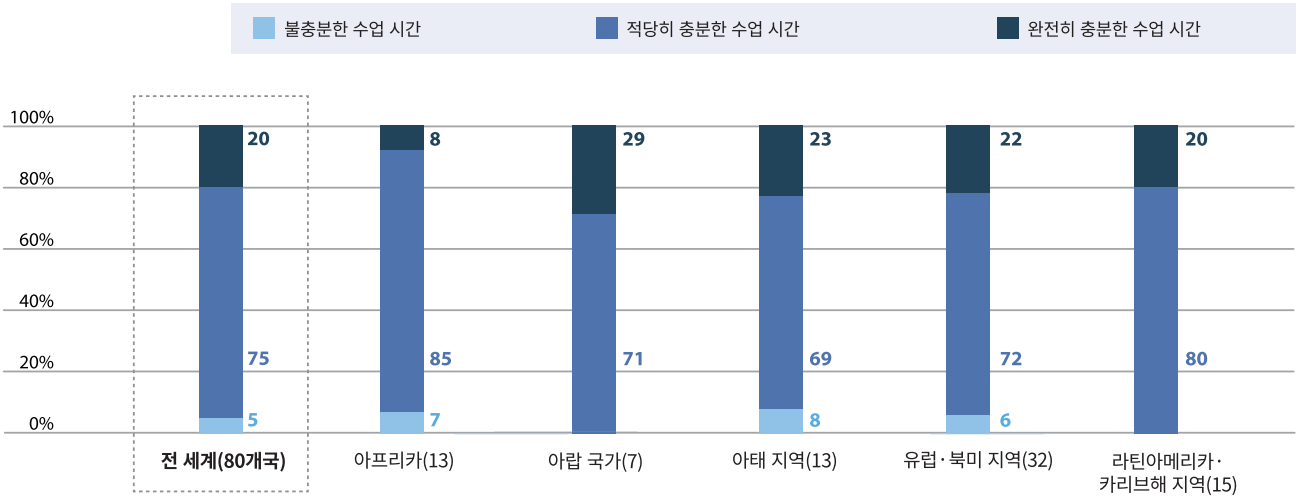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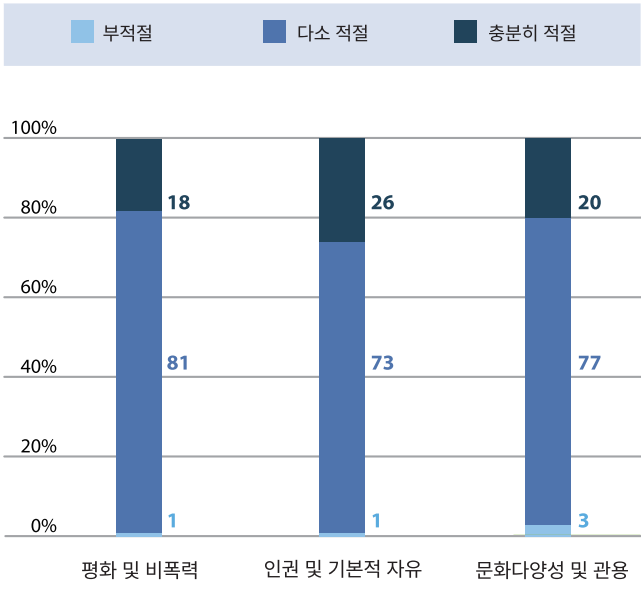


그림 11
교수 자료 내 포함된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내용의 적절성을 보고한 국가의 지침 주제별 비율(단위: %)

또한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관한 교수 자료의 수준은 만족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그림 11). 99%의 국가들(81개국)은 평화 및 비폭력, 그리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 관련 지침이 충분히, 또는 적당히 교수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및 관용 관련 지침의 포함 비율도 거의 마찬가지로 높은 상태다(97%).[6)]

이와 동시에 지역적 차이도 나타난다. 아프리카 국가의 17%는 문화다양성 및 관용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했다(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유럽·북미 지역 국가의 29%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21%는 이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고했다. 오직 8%의 아프리카 및 아태 지역 국가들이 문화다양성 및 관용 관련 교수 자료가 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보다 낮은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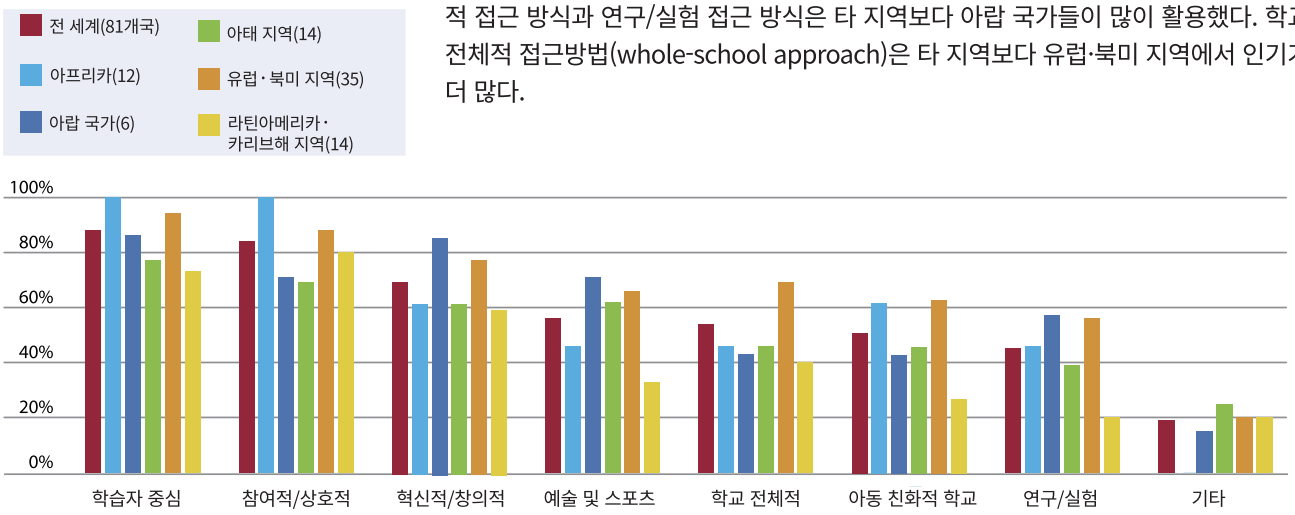
6) 인류의 생존 및 복지에 관한 지침은 해당 교수 자료에 대한 낮은 응답률 때문에 분석 시 포함되지 않았다.

결과 6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적 접근 방식이 가장 인기가 있다.

그림 12
1974년 권고안의 이행과 관련된 지침을 가르치고자 활용하는 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보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 (단위: %)

85%의 국가들(70개국)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가르치는 데 있어 복수의 교육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했다고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그림 12)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었고(응답국 중 88%), 참여적/상호적 접근 방식(84%)과 혁신적/창의적 접근 방식(71%)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실험은 교육학적 접근 방식으로서는 덜 선호되었다. 아태 지역은 특히 학습자 중심 및 참여적/상호적 접근 방식에 주력했고,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이들 2가지 접근 방식을 활용한다고 보고했다. 혁신적/창의적 접근 방식과 연구/실험 접근 방식은 타 지역보다 아랍 국가들이 많이 활용했다. 학교 전체적 접근방법(whole-school approach)은 타 지역보다 유럽·북미 지역에서 인기가 더 많다.



결과 7

불충분한 교사 연수가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그림 13
예비 교사 연수 내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반영에 대해 보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단위: %)

대체로 회원국들은 예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교사용 프로그램 모두에 있어, 1974년 권고안의 지침과 관련된 교사 연수 지원이 부족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국가들이 정책적으로는 해당 지침에 매진하고 있다고 보고(결과 2)한다는 점에서 놀라운 것이다. 이는 이들 국가가 관련 지침의 이행을 위해 교사 연수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 난관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75%의 국가들(61개국)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예비 교사 연수에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했다(그림 13). 이러한 부분적 반영률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 '완전히 반영'된 비율은 유럽·북미 지역에서 가장 높고(19%), 아태 지역이 15%로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아태 지역의 경우 '전혀 반영되지 않은' 비율도 23%로 가장 높아, 해당 지역 국가들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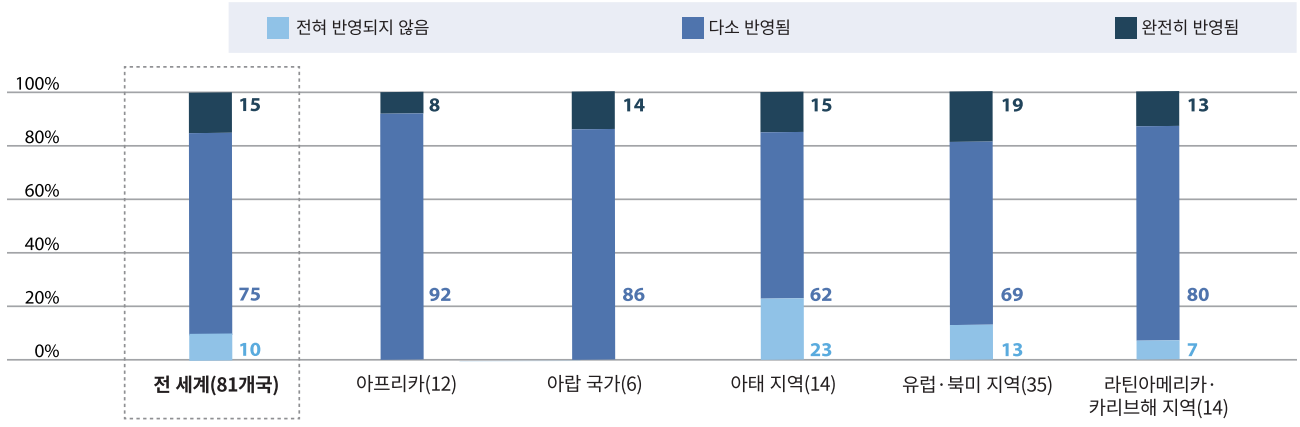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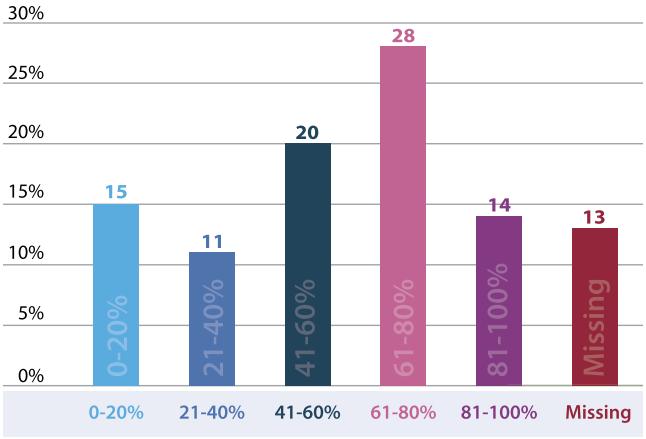


그림 14
응답 국가가 추정한,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대한 연수를 받는 교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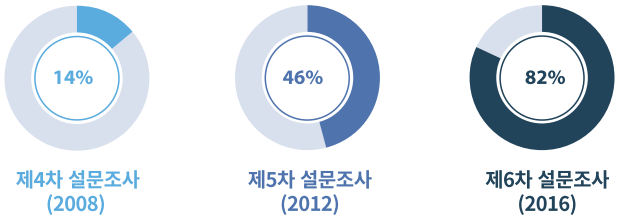
현직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과 관련해, 28%의 국가들(23개국)이 교사의 61-80%가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관한 연수를 받는다고 보고했다(그림 14). 이들 국가의 26%는 교사 연수 비율이 40% 미만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현직 교사 연수가 보다 발전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초등 교사 연수(87%) 및 중등 교사 연수(92%)에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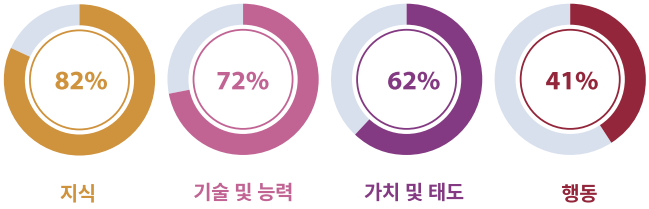
더 많은 국가가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학생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행동뿐만 아니라 가치 및 태도의 평가에 대한 관심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그림 15
설문조사 차수별로 보는, 학생 평가 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포함된 국가의 비율



2008년 제4차 설문조사(14%) 및 제5차 설문조사(46%) 결과와 비교해볼 때, 점점 더 많은 국가들(82%, 64개국)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을 학생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그림 15).

그림 16
학습 영역별로 보는,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따른 학생 평가를 시행하는 국가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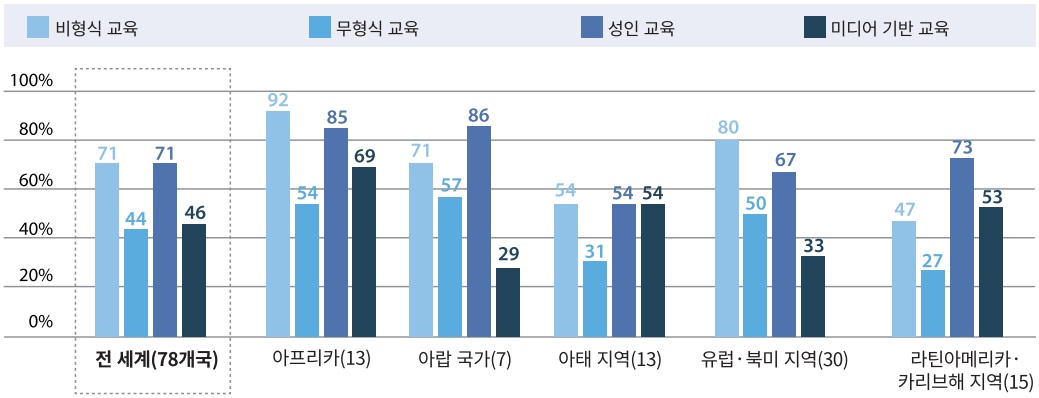
국가별로 상이하게 평가되는 학습 영역에 있어서는 82%의 국가들이 학생의 지식을 평가하고, 72%는 기술 및 능력을 평가한다(그림 16). 그러나 가치 및 태도(62%), 행동(41%)을 평가하는 국가는 그보다 적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국가의 14%만이 행동을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결과 9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은 공교육 밖의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

86%의 국가들(67개국)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학교 밖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그림 17) 71%의 국가에서 비형식 교육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지침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44-46%는 미디어 기반 교육 및 비공식 교육에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 포함에 있어 비공식 교육에 의지하는 국가들의 수는 아프리카(92%)에서 가장 많고, 유럽·북미 지역 국가(80%)와 아랍 국가(71%)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국가 가운데 아프리카 국가의 69%는 미디어기반 교육에 지침을 적용해 타 지역보다 앞서 있는데, 유럽·북미 지역 국가(33%)와 아랍 국가(29%)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아랍 국가의 경우 성인 교육에 지침을 차용한 국가의 비율이 86%로 가장 높다.

그림 17
공교육 밖의 프로그램에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의 지역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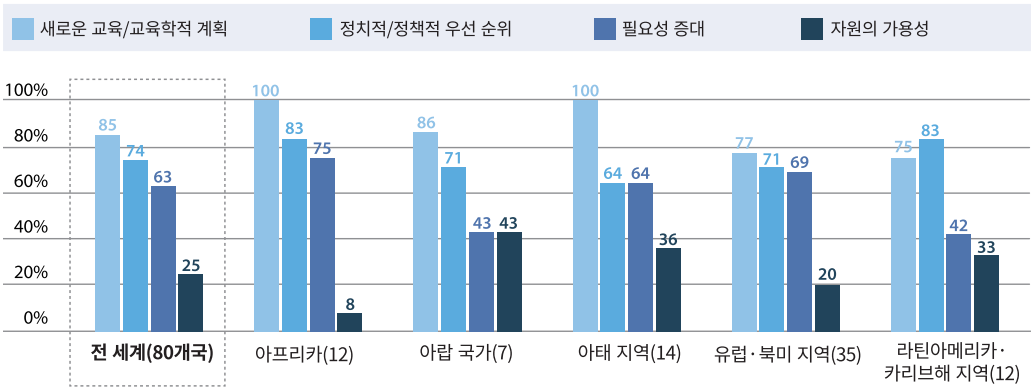


결과 10

새로운 계획 및 정치적 우선 순위는 가장 흔한 촉진 요소이며, 자원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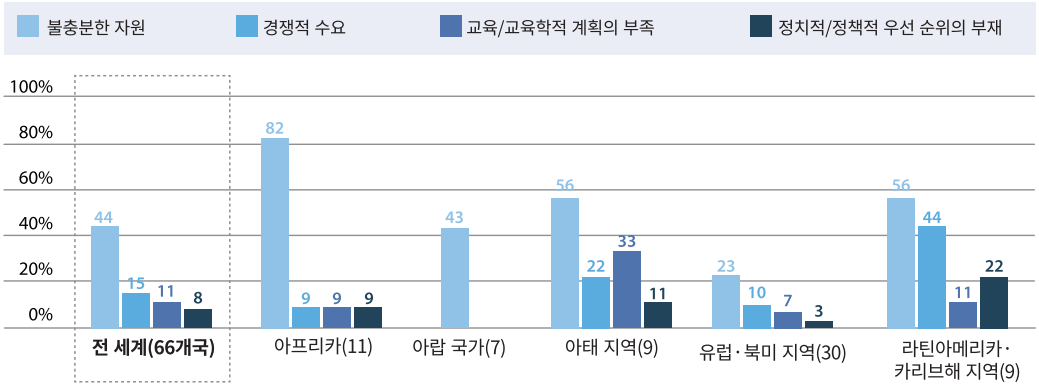
모든 지역에서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을 촉진하는 가장 공통된 요소는 새로운 교육/교육학적 계획의 도입이었다(그림 18). 지침에 부여된 정치적/정책적 우선 순위는 아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이 거론된 촉진 요소였는데, 아태 지역 국가들은 지침의 필요성 증대를 일반적인 촉진 요소로 꼽았다. 흥미롭게도 모든 지역에서 자원의 가용성이 촉진 요소로서 가장 적게 거론되었다.

그림 18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을 촉진하는 요소를 거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



자원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장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재정적·기술적·인적 자원 또는 다른 형태의 자원의 부족을 1974년 권고안의 지침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보았다(그림 19). 이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되는, 전 세계 평균인 44%를 훨씬 상회하는 82%의 비율로 자원 부족을 장애 요소로 꼽았다. 아태 지역에서는 전 세계 평균 11%를 훨씬 넘는 33%의 국가들이 관련 계획의 부족을 주요 장애물로 지적했다.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및 아태 지역에서는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자원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주요 장애 요소였다.

그림 19
1974년 권고안의 지침 반영의 주요 장애 요소를 거론한 국가의 지역별 비율(%)



IV. 결 론

제6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의 응답 내용에서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이 나타나는데, 이는 지침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1974년 권고안의 이행을 확대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다.

제6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기록적으로 높은 응답률은 각 국이 1974년 권고안의 지침에 보다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974년 권고안의 지침이 예상보다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분야인 교사 연수 및 학교 체계 밖 교육에 있어서는 더 큰 진전이 요구된다. 모든 학습 영역에서 학생 평가가 중요한 것처럼, 지침을 가르치는 데 있어 각 주제간 견실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전을 이루는 데 중요하다.

각 국이 학습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지침을 가르치는, 이른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 그리고 보다 발전시켜야 하는 교사 교육 사이의 간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제7차 설문조사에서 사용될 개정 설문지는 각 국의 자체 보고에 있을 수 있는 주관적 성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추가 사이트

https://en.unesco.org/themes/gced/sdg47progress

esd@unesco.org

교육
부문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진전

1974년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의 이행(2012-2016년)에 관한 제6차 설문조사 결과

「국제이해, 협력,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기본 자유에 관한 교육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이하 1974년 권고안)는 1974년 제18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유네스코 회원국들은 매 4년마다 유아, 초등, 중등, 중등 이후/고등 분야 교육 내 1974년 권고안 이행 조치에 대해 유네스코에 보고한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1974년 권고안 이행 현황에 대한 제6차 설문조사(이하 제6차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분석하고 있다.

제 6차 설문조사 결과는 회원국들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s) 내 교육 관련 목표(SDG 4) 중 세부목표 4.7을 달성하는 데 어떠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1974년 권고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세부목표 4.7은 1974년 권고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 및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과 관련이 있다. 세부목표 4.7의 이행을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은 유네스코의 우선 순위이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2030 의제 전반에 걸쳐 진척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다.

비매품/무료
03370
9 788994 307909
ISBN 978-89-94307-90-9